

# 제5회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기간: 1970. 4. 1~1971. 8. 15. (500일간)

## 1. 머릿말

본협회에서는 한국종축개발협회에서 실시하던 제5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사업을 농림부사업지시에 의거 71. 5. 15일부터 인계받아 전과 동일한 검정규정에 의거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본 검정소가 위치한 성북구 공능동 일대가 서울시 망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검정사 일부가 철거 되므로써 일부 검정계가 다른 검정사로 이동되어 검정되었으며, 정지및 도로공사등으로 차량의 소음과, 기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란계경제능력검정규정 제8조 1항(檢定鶏는 同一한 飼養條件에서 飼養管理한다)에 의한 동일환경여건이 부여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본건에 대한 공표여부를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출품자에게는 별도 자기가 출품한구의 성적을 통보하고 기호로 성적을 발표키로 결정되었기 이에 발표한다.

## 2. 검정 방법

### 1) 출품종계장 및 출품계명

표 1과 같다.

### 2) 종란모집

산란계 경제능력검정규정 검정세칙 제2조에 의거 검정위원이 직접 출품의뢰해온 종계장에 출장하여 2000개 이상의 동일계통 종란중에서 임의축출방법에 의하여 400개를 뽑아 모집된 종란을 극

비리에 출품자별로 종란에 암호를 기입하였으며 암호표는 밀봉날인한 후 본회 검정위원장이 이를 보관토록 하였다.

### 3) 부 화

모집된 종란은 검정위원장 책임하에 본회 검정소 부화장에서 출품종계별로 구분 부화하고 발생된 초생추는 종란에 암호를 기입하지 않은 다른 검정위원이 암호를 기입하고 극비리에 출품단위별로 익대를 부착하였으며 역시 밀봉한 암호표는 검정위원장이 이를 보관토록 하였다.

### 4) 육 추

부화한 검정계는 서울 성북구 공능동 511번지 본회 검정소 육추사이에서 각군별로 4尺×6尺의 평면 케이지에 수용하여 육추하였다.

### 5) 사양관리

검정계는 1군 50수 평사(16.5尺×9尺) 및 1군 50수 케이지(1.5尺폭에 2수)로 사육되었으며 사료는 NRC 사양표준에 준하였고 점등은 육성기간은 자연광선만을 이용하였고 산란기간은 일조 시간을 포함하여 14시간이 되게끔 점등하였다. 검정기간중에는 비록 병제라 할지라도 임의로 하지않고 그구에 격리해 두었다가 폐사된 후에 비로소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에 보내어 그 병인을 확인하게 하였고 일반사양관리는 검정규정에 정하여진바에 따라 실시하였다.

### 6) 검정기간

검정기간은 1970년 4월 1일부터 71년 8월 15일 까지 500일간으로 하였다.

을 것)

③ 초생추 체중은 35g 이상으로 기형이 아닌 건강추로서 털에 광택과 탄력성이 있을 것.

④ 초생추의 배꼽은 잘 아물어 있으며 털에 난각이나 항문에 분비물 등 지저분한 것이 부착되지 않을 것

⑤ 약추는 병의 씨앗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덤으로 받아오지 말 것.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병아리를 구입하여 기술 우수성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킨다.

- ㉔ 온도.....1주 33~35°C
- 2주 30~32°C
- 3주 28~30°C
- 4주 25~27°C

㉕ 습도.....제 1 주까지는 70%의 상관습도를 유지시킬 것이며 제 2 주 이후는 반대로 습기방지에 전력하여야 한다<바터리 육추시 헛가루 산포는 호흡기 유발이 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㉖ 환기.....온도의 중요성만큼이 점도 중요하니 사내의 악취제거에 전력해야 한다.

이외에 성계사에서 200m 이상 격리시켜 사육하며 밀사를 방지하고 점등시 전구의 유동을 막고 14~17°C의 온수로 처음 1주간은 사료량의 5 배를 급여시켜야 한다. 루시듐예방을 위한 예방과 연탄가스 제거에도 치중해야 된다.

### 3. 증계 관리

계속적인 환파와 일교차의 조절, 폭설, 중국지방에서 가끔 날려오는 황사(해변지방)에 대한 대책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환기소홀로 인한 기생충 만연과 질병발생도 예방해야 된다. 1.5kg의 암탉이 1시간에 산소를 32ℓ 섭취하는 반면 탄산가스를

10ℓ 가량 배출하며 1.8kg의 암탉이 10°C에서 100수가 발산하는 수분량이 5.4kg이 배출되는데 탄산가스는 지면에서 30~60cm 높이에 가장 많다고 하므로 케이지에 사육중인 닭에게는 더욱 스트레스 완화에 노력해야 되겠다. 케이지 사육중인 닭은 1주에 1회정도 그릿트를 적당량 일물 2시간전에 섭취시키고 평사에서 케이지로 이동시는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한 후에 이동시켜야 된다. 사료 보관창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운반시의 성분입자분리방지도 노력하고 쥐에 대한 손실을 방지시킨다. 참고로 쥐로 인한 피해상황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쥐의 수효는 도시인과 동수이고 시골인구의 3~4배이며 1971년도 3월말 농림부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8천만마리의 쥐가 있다고 한다. 쥐 1마리가 1일에 10g씩 섭취한다면 하루에 8천만마리가 8백톤(80kg 짜리 1만가마)으로 1년에는 3백 65만 가마를 먹는 셈이 된다. 번식력은 왕성하여 생후 60일이후 10여마리의 첫 출산을 본다. 작년 1월 1일에 한쌍의 쥐가 번식할 때 74년 1월 1일에는 1백만마리가 되는 셈이다. 물론 고양이나 족제비, 뱀, 사슴 등의 천적에 의해 감소되므로 다소 억제시키고 있지만 이들에 의한 손실은 막대하고보니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도로 방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육용계 사육시는 2주에 1회정도 체중측정을 하여 정상표준치와 비교 검토하므로써 사양상의 지침을 찾을 수도 있겠다. 아울러 검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사료효율, 산란율, 폐사율, 약품관계, 물품관계, 병계처리관계, 기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고 폐사계는 안양의 가축위생연구소에 가검물을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 4. 질병관리

세균, 병독, 기생충, 영양불충분, 관리부족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혼합감염이 다발하여 치료에 곤란을 겪는 수가 많다.

호흡기 질환을 식별할 수 있는 증상을 들어보면 개구호흡, 이상호흡, 비침, 안면의 종창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세분하여 보면

① 개구호흡시는 전염성 후두기관지염과 점막 계두에 의한다.

② 이상호흡시는 CRD, 전염성코라이라자, 점막형계두, 전염성 후두기관지염에 의한다.

③ 비침시는 CRD 등 기도침해로 발생되며

④ 안면의 종창은 전염성코라이라자 및 계두병 독과 마이코플라스마의 혼합감염시 나타난다.

이상의 질병중 전염성 후두기관지염과 계두는 치료가 용이하지 않는데 CRD 나 전염성코라이라자 등은 항생제와 설파제로서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이전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리없는 경영방식을 택하며 환경의 생리적요소인 각종 스트레스를 제거시킬 것이며 유전적으로 생산능력이 우수한 계통의 선택과 사양기술의 철저로서 생산력을 높이며 아울러 계군의 사회심리적인 요소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우선 시급한 양계산물 소비로의 개척을 위해 메스론의 활용, 군남의 촉진, 과잉생산의 억제. 외국에로의 수출양계인 혈동체제의 확립등의 방법을 모색하며 양계인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각계에 의견과 지철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